

INSS INSTITUTE FOR NATIONAL SECURITY STRATEGY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배 포 일	2026. 6.29(월)	문 의	기획실(02-6191-1154)

국가안보전략연구원(INSS), 'PEACE FORUM' 개최

연쇄 정상외교 분석부터 MDL 충돌방지·비핵화 로드맵까지
실질적 평화관리 방안 논의

국가안보전략연구원(원장 김성배)은 6월 29일 서울 웨스틴 조선 호텔 오키드룸에서 「2026 PEACE FORUM」을 개최하고,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평가 및 평화관리 방안 모색」을 주제로 변화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실질적 정책 대안을 논의하였다.

김성배 원장은 개회사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관리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며, 기조연설자 방용승 민주평통 사무처장은 북핵 해법의 역사적 비교를 통해 단계적 평화공존 정책의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 1세션: 연쇄 정상외교에 따른 하반기 한반도 안보환경 전망

최용환 INSS 부원장 사회로 진행된 1세션에서는 장세호 INSS 국제문제연구실장, 이희옥 성균관대 명예교수, 하상응 서강대 교수, 조진구 경남대 교수가 최근 연쇄 정상외교의 의미와 하반기 전망을 분석하였다. 발표자들은 미중 간 '관리된 경쟁' 국면 진입, 북중관계의 '전략적 협작(協作)' 격상을 평가하면서도 북중정상회담 공동 발표에 비핵화 언급이 전무했다는 점을 주목하였다. 아울러 미국 NSS에서 북한 비핵화 목표가 사실상 삭제되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대화 의지를 지속 표명하고 있으나 회담 성사 시 의제는 비핵화가 아닌 핵군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였다.

□ 2세션: 한반도 평화관리를 위한 현실적 과제(주변 4강 외교)

2세션에서는 조용근 경남대 교수(前 국방부 대북정책관)와 최종건 연세대 교수(前 외교부 제1차관)가 발표하였다. 조용근 교수는 북한의 MDL 국경선화공사가 약 74% 완료되어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되며, 완료 시 정전협정이 사실상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9·19군사합의 지상조항 복원과 유엔사-북한군 장성급회담 개최를 제안하였다.

최종건 교수는 비핵화를 장기 목표로 유지하면서도 **위협감축과 위기관리를 독립적 정책 트랙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9·19군사합의를 단계적으로 복원하는 현실적 방안을 제안하였다. 토론에서는 비핵화 로드맵 중 '중단(동결)' 조치를 최우선 목표로 일관되게 표명하여 한미 공감대를 형성하고, 중·러에도 '북핵 중단이 양국의 전략적 이익에도 부합한다'는 점을 적극 설득하는 新북방정책 추진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은 이번 포럼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실질적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INSS는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에 대해 매 분기 PEACE FORUM을 개최하여 전략적 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끝.